

지역 매아리

부안군, 외신기자단 초청 팸투어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채석강 등 자연 경관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전북 부안군을 찾은 외신기자단의 말이다.

7일 부안군에 따르면 '제6회 부안오복마실축제(5~7일)가 한창인 부안을 국내 주재 외신기자단 10여명이 지난 5~6일 1박2일간 일정으로 방문했다.

팸투어는 '부안오복마실축제'와 2023 세계잼버리스카트대회가 열릴 '잼버리공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8호 '수성당(水城堂)', 천년의 고찰 '내소사(來蘇寺)', '부안청자박물관', '곰소항' 등으로 이뤄졌다.

축제장에서는 부안뽕비빔밥을 맛보고 오복과 마실을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부안이 가진 역사·문화적 콘텐츠를 높이 평가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새만금 사업의 광활함에 놀라고 그 드넓은 대지 위에서 전 세계 5만여명의 청소년들이 꿈을 함께 키우고 비전을 공유할 잼버리 공원에 감탄했다. 또 칠산비녀를 수호하는 개양할미라는 여신을 모신 해신당과 선사시대 이래로 바다 혹은 해신에게 제사를 지내왔던 수성당도 돌아봤다. 수성당을 포함한 '부안 죽막동 유적'은 지난해 10월 동아시아 최대 해양제사 유적으로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부안=이옥수 기자

서천석 행복한 아이 연구소 소장 오는 30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특강

오는 30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특강

우리시대 대표적인 육아 멘토이자 소아정신과 의사인 서천석 행복한 아이 연구소 소장이 오는 30일 정읍시청을 대상으로 특강을 갖는다.

제69회 정읍 단풍아카데미 일정으로 마련된 특강은 오후 2시부터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서 소장은 이날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를 주제로 아이와 어른 모두 행복한 육아법과 진소리 없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더불어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정확하게 짚어 주는 한편, 아이가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부모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소장은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첫째는 부모가 좋은 사람이야 하고, 둘째는 아이가 부모를 좋아해야 한다는 것. 보통 부모들은 아이에게 직접 하는 말만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은 부모의 태도와 행동, 자신에 대한 반응, 점수와 표정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은 지난 4일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로"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개관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에서 지난 4일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은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군의장,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 심숙경 부의장,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생태환경보전협의회 회원과 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국악예술단 '고창'의 식전공연으로 시작해 기념사 및 축사, 개관 컷팅, 관리센터 관람, 기념식수 등으로 진행됐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는 민선6기 역점사업으로 고창읍 도산리

578·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6,579㎡, 건축면적 1,500㎡, 지상2층 규모로 2015년부터 사업비 58억원을 투자해 조성했다. 군은 앞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발전·지원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거점 관리센터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창군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을 중심으로 온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 생태습지 복원, 생태관광지 조성,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조성, 생태관광코스, 습지복원사업과

함께 학생교육과 브랜드 인증사업 등을 통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꾸며 나갈 계획이다.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 심숙경 부의장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정 후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창은 생물권보전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도시로 발전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세계에서 인간과 자연이 가장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매력 넘치는 한국인의 분향 고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날마다 신나고 행복하게'

고창 어린이 민속큰잔치 성황

고창군이 '제 96회 어린이날'을 맞아 고창어린이 민속 큰잔치를 지난 5일 고창초등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고창어린이 민속큰잔치는 고창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주관했으며 고창경찰서, 고창병원, 고창소방서, 고창고, 고창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자원봉사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다듬이소리와 마당기 입장으로 대회사 시작을 알렸으

며 박우정 고창군수, 기관단체장들 비롯한 어린이와 부모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어린이날 기념공연도 고창고당 양민경 교감의 대회선언과 모범어린이 표창장 수여, 격려사, 어린이날 노래, 몸풀기 순으로 진행됐다. 참여 어린이들은 제기차기, 널뛰기 등의 15가지 민속놀이를 즐기며, 솟사탕 나누기, 빵 나누기 등의 먹거리마당과 화

재진입, 순찰차 체험, 소아비만 관리 위한 체지방측정 등 체험마당을 즐겼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 96회 어린이날 고창어린이 민속 큰잔치 현장.



정읍시가 지난 3일 정부혁신 우수과제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정읍시, 정부혁신 구현 위한 우수과제 8건 선정

'ECO 축산 청정정읍 조성' 최우수

정읍시가 정부의 국정기초에 맞춘 '혁신'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우수과제로 8건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4월 9일부터 17일까지 2018년 정부혁신 우수과제 발굴 공모를 통해 모두 61개 과제를 발굴, 우수과제를 선정(4월 20일)하고 지난 3일 시상식을 가졌다.

최우수 과제로 'ECO축산 청정정읍 조성'이 선정됐다. 현재 축산업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4대 문제(시설, 분뇨처리, 질병발생, 생산성 저하)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과 축산농가, 관련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예코축산 선과 질병 사전 차단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수 과제로는 '철단산업 미래비전 2030'과 '시정현안 협의회의' 2건이 선정됐다. '철단산업 미래비전 2030'은

정읍만의 특화분야 선정과 신기술 개발 등의 지역발전 촉진 시책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 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련해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고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정현안 협의회의'는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협의 회의이다. 일하는 방식과 문화에 협업을 내재화(內在化)하고, 정책수립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밖에도 정읍시 과제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온·오프라인) 확대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10만원 이하 지방세 환급금 직권환급 및 문자서비스 시행 ▲잔여지(지투리) 국유재산 관리 알리미 5건이 선정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정신건강증진 업무협약 체결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임소연)와 고창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종만)이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장애인 우울증 및 자살예방, 인권교육, 가족기능 강화, 사례관리, 장애인식개선 등을 위한 사업 연계를 비롯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상호 협력과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생활복지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지속적인 연계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임소연 센터장은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편견을 해소하도록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없음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매가 익어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TEL : 063-584-9980
www.gangsanwine.com